‘밀착’될 때까지 양보란 없다

(이사야 50:1~11)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밀착’ 될 때까지 양보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밀착’ 될 때까지 양보란 없다

가을이 되어서 환절기가 되면 이불을 정리합니다. 여름에 덮었던 이불은 집어넣고 두꺼운 이불을 꺼냅니다. 부피가 큰 이불을 진공포장을 하면 딱딱할 정도로 밀착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부피도 덜 차지하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밀착시켜주는 진공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고 싶어도 힘든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이외의 대상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밀착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본문은 선민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밀착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새롭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설령 무학인 사람에게조차 학자와 같은 혀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공회원들을 상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배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신념에 차서 조리 있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에덴은 무법칙천지였다는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밀착되면 내 입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됩니다. 내 귀는 하나님의 이어폰이 되고 내 눈은 하나님의 카메라가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의 인격을 장갑으로 끼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무지렁이와 왜 밀착하고 싶어 하시고, 반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밀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쪽이 모두 딱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밀착은 선민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나타납니다. 4~5절은 예수님의 귀와 눈과 혀가 모두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셨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밀착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어느 유식한 학자도 하나님보다 유식할 수 없으며, 어느 철학자도 하나님보다 논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과 밀착되었기에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6절부터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모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왜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으셔야 했을까요?
그 다음은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모욕을 당하시고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씀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서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되 수치로 느끼

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밀착상태를 이루었던 예수님을 정작 이러한 수치 가운데로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당한 말씀은 이미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려는 메시지가 바로 밀착상태의 점검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순종으로 이해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될수록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장악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밀착되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멸시와 천대가 아닌 영광과 형통으로 이끄실지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 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배경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리라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 왕국 유다를 아내로 비유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선민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이 안 풀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이나 나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 밀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당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인 것들이 밀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좋은 일

이 생기면 세상에 나가 자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은 삶에서 좋다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지 않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고 선민이 선민다움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밀착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자랑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구원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구원이기에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거삼아서 나와 하나님의 밀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밀착이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때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곤궁에 처한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선민과 완전한 밀착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밀착을 이루시기 위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빼앗으셨습니다. 이미 떠나기 전에 아내를 포기하는 각오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치안부재의 시대에 방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아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머물 땅을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백세에 얻은 아들마저도 마음에서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다면 아들 정도는 마음에 담아도 용납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밀착하고자 많은 것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25년이나 지난 후에야 약속을 이루셨으면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하시니 웬 말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선민이 아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은 채로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민이라면 머리털조차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밀착을 방해하는 것들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제하시기 위해 밀어붙이실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은 평강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사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몰아붙이실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목숨을 제

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욥을 자랑거리로 삼으실 만큼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도 마음이 완전히 알몸이 되고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욥과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가능한 한 덜 부셔지고 하나님과 밀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겨울철 이불을 진공포장으로 밀착시켜서 정리해주는 진공기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붙잡은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건강일수도 있으며 명예와 같은 추상적 가치일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었다면 설령 주님이 당하신 것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마음만은 평강할 것입니다. 얇은 벽지는 혼자서는 서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벽지가 벽과 붙어서 하나가 되면 곡괭이로 찍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곡괭이로 찍히는 사건이 벌어져도 끄떡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밀착의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서 그 밀착의 위력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없으셨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8절에서 예언되는 대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만분의 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밀착은커녕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낀 것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붙들면 붙들수록 더 망가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두 손 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밀착을 이룰 방법으로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기 쉽습니다. 이렇게 재물

을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내 마음에서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기 좋은 대상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밀착을 위해 자녀들에게 계속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녀를 끌어안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사회적 명성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될 때까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공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싹 빨아들여서 하나님과 밀착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밀착의 위력을 예언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과 밀착되셨기에 불평과 원망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으면서도 자랑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밀착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밀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재벌들과 밀착할 수 있다면 대단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 하나가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나를 밀착시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착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이 멸시당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기준 삼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자랑이나 불평을 나오게 하는 요인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완전히 추방해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